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7(土)	28(日)
 구름 조금 10/22℃	 차차 흐려짐 11/19℃

News

- 유가 90달러 돌파 ②
- 주유소 '눈속임 가격판' ③
- '매 맞는 남편' 급증 ④

Jeollado

- 그 사람-김성용 신부 ⑦



Entertainment

- 아역 스타 전성시대 ⑧
- 총무로, 만화에 빠지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김 ⑬



우림재단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d.ac.kr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innam.ac.kr



광주공항 온 北 고려민항 박준영 전남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전남도민교류협회의 방북단이 26일 오전 광주공항에서 평양행 고려민항 전세기를 타고 4일간 일정으로 방북하기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북한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해 전담도가 지원, 평양에 설립한 '콩 발효식품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

“두 밤만 자면 새집으로 이사가요”

아침편지재단·노블하우스, 여수 성민이네 '사랑의 집' 선물

여수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돌산읍 평사리 한 야산 자락의 비닐천막집에 살고 있는 성민(평사분교 6년·13)이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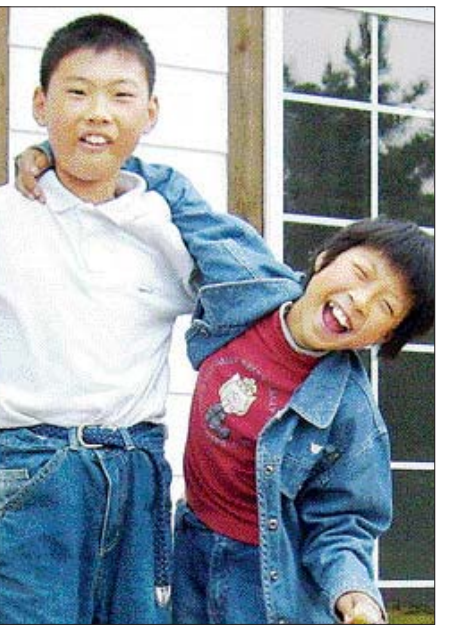
지난 8월 말 주위의 도움으로 새 집 짓기가 시작된 후 성민이는 입주하는 이달 29일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번 주말과 일요일만 보낸다면, 월요일에는 꿈에도 그리던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한다.

성민이는 허리 디스크로 일을 못하는 아버지(지경남·55),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어머니(이금자·42), 여동생 은지(7)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야산에 지어진 무허가 비닐천막에서 살았다. 3년 전 폐가를 전전했던 성민이네 사정을 딱하게 여긴 여천NCC(주) 자원봉사 동아리 '한사랑회'가 나서서 지난 해에 지어준 보금자리였다.

성민이네는 이젠 이틀만 지나면 아무 때나 따뜻한 물이 팔팔 나오고, 수세식 좌변기가 달린 새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성민이는 26일 오전 새 집이 보고도 싶고 궁궁하기도 해, 동생과 함께 아직 청소도 덜 된 새 집의 이곳 저곳을 둘러봤다. 아버지가 사용할 수세식 좌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물도 내려보고, 공부방 전등도 켜봤다.

성민이네 집은 '아침편지 문화재단'과 '노블하우스(종합건축설계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짓기 3호 행사로 지어졌다. 지난 8월 28일 열린 착공식에는 성민이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2천만원의 기탁한 여수 은현교회 목사와 신도, 여천NCC(주) 자원봉사 동아리 '한사랑회', 이웃 주민, 사랑의 집짓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 날 성민이네 가족은 내란히 서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던 성민이 엄마는 “몸이 아픈 성민이 아빠가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이 생기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 밖엔...”이라며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한 듯 성민이 아빠도 몸을 돌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함께 울고 있던 은지는 내 방이 생긴다는 기쁜 빛인지 금세 밝게 웃으며 귀여운 모습으로 “사람들 많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좋은 집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26일 성민이(왼쪽)가 주위의 따뜻한 도움으로 만들어진 새 집 앞에서 동생 은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과기정위 임인배·김태환·류근찬 의원 국감 뒤 단란주점 술판

과기정위 임인배·김태환·류근찬 의원 국감 뒤 단란주점 술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을 포함한 국정감사단 일행이 피감기관들로부터 한정식집과 술집 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6일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관들에 따르면 국회 과기정통위(위원장 임인배)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행은 지난 22일 대전에서 대덕특구지원본부, 기초기술연구회, 생명공학연, 천문연, 한의학연, 국가핵융합연구소, 과학기술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유성의 한정식집 등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700여만 원어치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한정식집과 인근 고깃집 등 음식점 두곳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일부는 폭탄주를 마셨으며 두곳에서 400여만원과 300여만원 등 모두 700여만원의 비용이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 가운데 임인배·김태환·류근찬의원 등 3명은 인근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셨으며 이 자리에 일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들이 먹은 술값을 지불했다.

이 단란주점 주인 J(36)씨는 “당시 의원 등 7~8명이 와 인차 3명과 맥주 10병 남짓을 마셨다”며 “술을 마시던 중 2명이 먼저 나갔고 술값으로 68만원이 나왔는데 23일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델 2차니 하는 것은 절대 없고 술값을 김 의원이 카드로 내리는데 피감기관에서 ‘큰 돈도 아닌데 우리가 내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스쿨 총정원 2000명으로 교육부, 500명 늘려 국회 보고... 사립대학들 반발

로스쿨 총정원 2000명으로 교육부, 500명 늘려 국회 보고... 사립대학들 반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4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총정원으로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째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러시아 국립 이르쿠츠크 교향악단 첫 내한 공연

2007.10.27(토)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강당
2007.10.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강당
2007.11.10(토) 나주시 공연
내수문화예술회관

티켓 문의 전화: 062-506-7771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고 뒤편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